

6기

기지촌

활동

자료집

1997.6.27

11대 총여

6기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기지촌 **활**동 **추**진위원회

기지촌의 조국

척박한 나라일수록
봄으로 배울 일이 많으니
半島같은 나무에서 가랑잎째 같은 여자들
기지촌 까랑으로 가랑이 찢긴 채 떨어져 쌓이는 소리 듣는가
분꽃이나 채송화 까냥 여위고 조그만
허리로 근화도 채 안 벗은 일본군졸들을
하루에 스무명도 받아야 했다던 청신대
지금은 식민지도 아닐래 전쟁중도 아닐래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며
통일의 역군 양취를 위하는 길이
끝 애국이고 돈도 버는 길이라며
신채발부, 부보님이 주신 밑천을 쓰니 험기도 위은 일이라며
살려고 버둥거리는 꽃잎다리를 이 곳 까랑에 꺾꽂이 하는
잘먹고 잘입는 살편 동조야

우리들의 조국을 분지까지요
분꽃씨처럼 까맣게 오그라든 기지촌 여자들의 극적인 분노와 그리움.
분노를 조국으로 할 이들이 어디 우리뿐이겠어요
반도나무기둥에서 꺼지않아 구실 좋은 왜군, 흥칼들 불려지고
우리들 조국이 깨꽃 일 듯 활활 타오르겠죠.
그 편 과거 흥 삼지않는 월산땅이나 해남쪽에 가
정갈한 조국 덕보며 살고 좌요.

- 97년 여름 기지촌여성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

올해로 선배들이 90년도 부터 수행해왔던 기지촌활동이 8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기간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기지촌활동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기지촌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조국의 현실과 여성의 현실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서여대협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97년 여름기활을 준비하면서 서여대협 기지촌활동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출발을 기약해봅니다.

그간 여대협과 각 단위 여학생회의 조직적연대의 틀이었고, 핵심인자의 발굴·단련의 장이었던 기지촌활동이 상시적인 기활추의 활동으로 이제는 기지촌여성과의 상시적이고 조직적인 만남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기지촌활동이 일회적인 사업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기층 민중과의 연대사업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여름기활을 준비하는 기지촌활동추진위원회는 8년간 남모르게 노력해온 선배들의 노고에 부끄럽지않은 기지촌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끊임 없는 연대의 작업들을 시도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의 성과가 한해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여대협으로의 집중을 통해서 해가 거듭할 수록 기지촌활동의 수행지역의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진정 기지촌여성들의 자활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각 지구기활주체님들과 학교기활주체님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로 올 여름 기지촌활동이 서여대협과 그간의 기활추의 위상을 새로이 높여내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여름 기지촌활동이 기활대원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치열한 고민과 실천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서여대협기지촌활동추진위원회

- 97년 여름기활의 의의와 목표 -

1. 들어가며

97년 여름기지촌 활동을 준비하면서 8년째의 기지촌 활동의 성과들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1990년 1회 기지촌 활동을 수행한 이후로 서울지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지촌활동을 벌여냈었습니다. 그러나 서여대협기활추(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기지촌활동 추진 위원회) 97년 기지촌활동을 준비하면서 그간의 기지촌 활동을 수행하면서 가지게 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지촌활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회적인 기활로 인해서 올바른 기지촌 여성들과의 연대의 관점이 세워지지 못했다. (후속작업의 한계성과 일상적 연대의 부재)

두 번째, 기활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축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세 번째, 변화된 상황에 맞는 교양의 부재로 기활대원의 가치관 혼란이 야기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여대협 기활추가 상시적인 활동으로 올바른 연대의 관점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낼 것과 그것을 통해 여학생회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기지촌 활동의 의의와 목표

기지촌 활동의 의의

- ① 기활은 청년 학생들과 기지촌 여성들의 서로의 삶에 변화를 주고 발전시키는 활동이다.
- ② 각 단위 여학생회, 여대협의 조직적 연대 및 강화를 가져오는 활동이다.
- ③ 기지촌 활동을 통해 핵심적 여간부들을 발굴, 단련시키는 장이다.
- ④ 단위 여학생회가 독자적 고민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중연대 사업이다.
- ⑤ 여성이 가지는 성, 계급, 민족 모순이 첨예하게 결합된 지점으로 여성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기층 민중여성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이다.
- ⑥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의식을 정립하는 계기이다.
- ⑦ 식민지조국의 현실을 체험하고 그 모순을 깨닫는 장이다.

- 기지촌 현장 단체에서 보내는 편지 -

1. 들어가며

또 다시 여름입니다. 날마다 어수선한 채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계획하고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 있을테지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젊은 학생들의 기지촌에 관심이 부쩍 높아지곤 합니다. 그걸 담은 그릇이 바로 '기지촌 활동'이라 할 수 있겠군요.

올해로 8회째가 됩니다. 아주 적은수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기지촌활동이 8회를 맞이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과 애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지촌에는 조용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1992년 윤금이씨의 죽음에서부터 1996년 이기순씨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가 하면, 기지촌문제에 대한 꼼꼼한 되돌아보기와 동두천에 새 단체가 들어서서 반가운 일도 있었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활'하면 으레 따라다니던 당위성 말고, '때가 되었으니까' 하고 준비하는 자세 말고 편하고 새롭게 기활을 준비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를 띄웁니다.

'기활의 역사를 다시한번 되짚어 보고, 그동안 기지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 보면서 보다 진지하게 기활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2. 기지촌 활동이란

'기지촌활동'이란 말 그대로 '기지촌지역에서 벌이는 활동'입니다. 좀 더 세세히 설명하자면 '기지촌지역, 기지촌여성, 기지촌 어린이들의 문제를 우리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다 함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지촌 여성문제에 대해 이해하자면 우리사회의 여러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지촌지역이 생긴 배경,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한국사회의 매매춘문제, 혼혈아동의 문제 등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가 바로 기지촌여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활이 체계 있게 준비되던 시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보다는 막연한 당위감을 갖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기지촌활동은 '사람과 사람'간에 풀어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활동입니다. 그러다보면 더 깊은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떤 한 여성의 비참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연한 '분노'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기 보다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할' 활동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3. 기활의 역사

첫 번째 기활은 1990년, 의정부 두레방을 알고 지내던 몇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학교가 있지요. 이화여자대학교와 한신대학교가 그 처음을 준비했던 학교였습니다. 의미가 있다면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기지촌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함께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지요. 현재 동두천 새움터 대표 김현선씨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활동이 계기가 되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기지촌여성문제가 알려지고 기활이 끝난 후에도 관심있는 사람들에 의해 자원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1991년, 2회부터는 체계있게 기활이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대학의 여학생회 조직들이 기활을 준비하면서 체계와 내용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기활이 점점 알려지자 1992년에는 서여대협(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와 수여대협(당시 수원지역 여대생 대표자협의회)이 각자 다른 기지촌지역 기활을 추진하면서 기활이 여학생운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때는 두레방에서만 진행되던 활동이 당시 참사랑쉼터가 있는 송탄에서도 진행되어 기활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1993년, 4회 기활은 윤금이씨 살해사건 이후 기지촌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기지촌지역 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촌지역으로까지 활동이 넓혀진 의미있는 해였습니다. 매매촌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모임인 '한소리회'와 연대하여 두레방(의정부, 동두천), 참사랑 쉼터(송탄), 다비타의 집(동두천), 막달레나의 집(용산)에서 활동하였고 그 외에도 동두천의 혼혈인 선교센타에서도 기활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 우리사회의 큰 문제인 매매촌문제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1992년도까지 학생으로서 기활에 참가하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기지촌현장 활동가로 남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1994년, 5회 기활은 다시 두레방(의정부, 동두천)과 다비타의 집으로 활동 범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해지고 서서히 지역에서도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잡았으며, 1996년, 6회 기활은 동두천 두레방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성과가 눈에 두드러 집니다.

1996년, 7회 기활은 동두천 두레방이 문을 닫고 의정부 두레방과 다비타의 집 등 단 두 곳에서 기활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지촌문제가 많이 감추어져 있는 우리사회에서 좀 더 당당하게 이 문제를 끄집어 내고 활발히 참여한 해였습니다. 의정부 두레방의 경우 지역 민주단체와 연대하여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지역내 미군기지 실태 조사 등을 활발히 벌였습니다.

4. 1997년, 제 8 회 기활

8회 기활을 앞두고 많은 고민이 뒤따릅니다. 해마다 진행되던 기활이기 때문에 역사와 의의가 남다른 활동임이 분명한데도 고민이 많습니다. 8회 기활을 앞두고 드는 고민이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그런 성과와 의욕을 다 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현장단체에서 이를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997년은 동두천 두레방이 아쉽게 문을 닫았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희망을 담고 있는 '새움터'가 들어서는 성과가 있었고, 우리사회에서는 처음으로 기지촌문제를 드러내 놓고 당당히 얘기하는 제 1 회 기지촌 문화제도 치뤘습니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을 뒤흔들고 크고 작은 기지촌을 다 다니며 조사했고, 그동안 기지촌여성문제에 대해 갖고 있던 내용을 총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큰 성과입니다. 아마도 제 8 회 기활은 이러한 성과를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성과를 일궈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기지촌의 실태 -

1. 들어가며

기지란 단순한 군대와 군사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민족과 지역의 지배와 통제를 위한 군사력의 실제로서 자국의 이해를 실현해내는 정치,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 군대의 기지는 식민지 민족의 대중운동을 진압하며 혁명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제국주의의 반혁명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영속화함에 따라 이들의 지위에 관한 규정이 재정립되기까지 한국인의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와 치안질서의 혼란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이렇듯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 속에 군통수권은 물론 군사작전권마저도 장악한 미국은 한국군대에 대해 직접적 지배를 해 왔다. 이리하여 미제국주의의 세계전략에 의해 병참기지화된 한반도에는 미군의 주둔지를 중심으로하여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기지촌]은 미군을 상대로 한 매춘여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민족의 아픔과 비극을 가장 첨예하게 나타내는 지역이 되었다.

2. 기지촌의 여성과 아이들

① 기지촌 여성은 어떤 분들인가요...

기지촌에 들어오는 여성들은 우리사회에서 젊은 여성 다섯명 가운데 한명꼴에 달하는 매춘여성들의 경로와 유사합니다. 해방이후 미군이 처음 남한에 발을 딛었을때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거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의 가정문제,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각종 성폭행의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매매춘의 문제는 이제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는 외세저질문화의 유입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지촌의 매매춘여성 문제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매춘관광' 혹은 기생관광을 통한 일본인 상대자와 유사하지만, 기지촌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온갖 범죄와 마약, 폭력의 온상이 되는 곳이므로 각종 폭력, 살인,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생명까지도 위협 당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② 기지촌 혼혈아(이중문화자녀)들이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들은 대부분 기지촌을 제외한 사회 어느 곳에도 자신들이 발붙일 곳은 없다고 생각하며 심한 자괴감으로 각종 성병과 알코올 중독 등에 시달리면서 그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미군과의 결혼뿐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군과 동거를 하는 여성들 가운데 혼혈아자녀를 지닌 여성들이 많고, 현재까지 통계된 혼혈아의 수만도 7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중 0.2%만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서비스업계, 일용직등 사회밑바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국적이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의 정체성도 가지지 못한 채 오로지 미국문화에 대한 숭배만을 배우기 쉽고 동시에 기지촌의 외세저질문화로 인해 포르노잡지, 테잎등에 쉽게 노출되어 건전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국민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사회의 따가운 시선으로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③ 기지촌활동을 가면 무엇을 하게 되나요...

작년에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에서 준비한 기지촌활동에는 지방을 포함한 20여 개의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각학교별로 일주일간 진행되는 기지촌활동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중문화자녀들을 위한 놀이방 및 공부방 활동과 매일저녁시간에는 성문제에 관한 간담회, AIDS환자와의 간담회, 동두천 민주시민단체방문, 기지촌여성들이 일하는 클럽방문, 어마어마한 미군기지를 직접 방문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활동에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 아이들과 기지촌 여성들, 미군기지과 미군들을 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가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④ 클럽방문

클럽방문은 기활기간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오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막연한 호기심으로 갈 수도 있지만 미군만이 갈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클럽들을 방문하면서 내가 딛고 있는 땅이 미국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남의 나라에서 저토록 당당하게 대접받는 미군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기도 하구요, 직접 일하는 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미군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떠해야겠구나 고민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지촌활동이 아닌 평상시의 클럽방문은 한국인 여성에게만 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과 기지촌활동에서만 가능한 클럽방문도 한국경찰의 단속이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가슴 답답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동두천의 클럽은 규모가 다양하며, 흑인, 백인에 따라 서로 전용으로 출입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큰 클럽에는 2~30명 작은 클럽에는 보통 4~5명의 기지촌 여성들이 일하며 댄서, 웨이츄레스, 빠텐, 이야기 상대 등의 여성이 있습니다.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일주일에 한번 검진하는 성병 진료카드가 있어야 하며 이것은 보통의 한국인 상대의 매매춘여성과의 차별처럼 보이나 사실은 깨끗하고 건강한 여성을 미군에게 내주려는 모순을 발견하게 되어서 마치 일제의 황군을 위해 조선처녀를 끌어내던 일본군 성노예와 유사한 듯 보입니다.

⑤ 놀이방 공부방 활동

기활을 수행하는 우리는 놀이방, 공부방을 아이들과 그저 놀아주는 역할로만 축소해서 안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기지촌 아이들의 현실을 볼 때 대부분 매우 거친 환경에서 돌보아 주는 이 없이 자라나며 기지촌활동대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혼혈아이들뿐만 아니라 기지촌의 한국 아이들은 모두 미국의 저질스런 문화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폭력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로 오염된 기지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또한 미군에 의한 어린이 성폭행이나 강간의 위험은 실제로 증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의 정서와 교육 등에 힘쓰는 반면에 기지촌여성들의 고민은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는데 있는 것입니다.

작년 명지총여에서 방문한 곳의 아이들 중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쓰거나, 친구를 때리고 싸우는 아이들, 자폐증세를 보이는 아이, 집안환경으로 인해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모두에게 사랑 받으며 우리가 기지촌을 떠나온 후 미국으로 간 행복한 기지촌여성과 아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대로 방치되거나 대부분의 기지촌 여성들은 국제결혼이후 버림받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해 소식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한 한국여성들에 대한 대책도 그리고 미국인 아버지를 가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남의 나라에서 온갖 폭력을 휘두르고 이익을 챙기고도 모자라 그 나라 여성을 유린하고 자기 자식을 버리는 미국과 한국정부와의 책임 있는 대책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3. 나오며

여성이 당하는 억압과 착취의 문제는 단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제도와 체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여성해방은 세계자본주의 체제 속에 편입되어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지배적인 자본주의 국가라는 세계사적 보편성과 제국주의의 침탈에 의한 신식민지라는 상황, 거기에 민족분단이라는 특수한 문제에 의해 자주적 발전이 차단되고 있는 한국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여성 해방 운동의 이념과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주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대외 종속적인 경제구조의 취약성에서 야기된 산업형 매매춘에 의해 비로소 매매춘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지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매매춘 형태를 다시한번 되집어보고 이것을 위한 제반조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칠줄 모르는 미군범죄와 한미행정협정(SOPA)

1. 한미행정협정 (SOPA)이란?

①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②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행정협정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행정협정이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2. 미군 범죄의 실태와 원인

① 미군 범죄의 현황

주한 미군에 의한 범죄는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 미군이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미군범죄는 줄잡아 10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2,200여건, 하루 평균 5건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다. 즉 최소한 하루 평균 5건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다. 즉 최소한 하루 5명의 우리 국민들이 미군의 범죄행위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미군 범죄가 거의 대부분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역시 한국정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미군범죄 중에서 한국 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0.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991년 한미행정협정 개정 이후에도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율은 1%에서 맴돌았다. 1992년 10월부터 1993년 8월까지 총 8백 50건의 미군범죄 중 단 10건인 1.17%만이 한국정부에 의해서 재판권이 행사되었다.

그리고 미군범죄 피해자들은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미군에 의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런절차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설사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에도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고 그 절차와 규정이 복잡해 실제 피해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당장의 치료비조차 없는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절차를 밟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몇푼 안되는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미군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사기, 절도, 밀수, 마약, 방화 등 온갖 종류의 범죄를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미군범죄는 이런 직접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저질폐문화 유품, PX불법유출을 통해 거대한 암시장의 형성

등 광범위한 형태로 저질러 지고 있다.

② 근본원인은 주한 미군에 있다.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와있다는 생각으로 오만방자함께 빠져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민을 멸시하고 한국민의 인명을 경시하고 있다. 이 점은 미군들의 범죄동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살인, 폭행의 경우 가장 많은 이유가 '아무 이유 없이' 라는 것이다. 즉, 미군은 아무 이유없이, 공연히 사소한 시비 끝에 한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폭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또 미군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미명아래 아주 공격적으로 교육, 훈련되고 있다. 미군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주한미군의 주력 미 2사단의 표어가 '출생은 우연(Live by Chance)', '사랑은 선택(Love by Choice)', '살인은 직업(Kill by Profession)'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 주한미군들 대부분이 사회 하층계급이고 저질문화에 빠져 있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다. 미군들 중 상당수가 할렘가 등 빈민가 출신이고, 그들은 단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와있다.

이런 미군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것은 미군 범죄자를 대하는 미군 당국의 태도이다. 주한 미군 당국은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처벌해야 될 미군에 대해서도 대부분 주의, 견책 등의 행정적 징계로 처리하고 있다. 그들에게 미군 범죄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는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군 범죄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미 '미군들의 사소한 문제' 운운하였다. 그리고 윤금이씨 살해 사건 때 '윤금이 공대위'가 공개사과와 범죄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대해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 리스카시는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다음과 같이 당당히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일환으로서 미군이 이곳에 와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년 이상에 달하는 우리의 우방 관계를 통하여 실로 수십만 명의 미군들이 대한민국의 방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집과 가정을 떠나 이곳에 왔으며....”

그리고 미군 당국은 입만 열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한미행정협정의 준수'를 외치며 한국 정부의 처벌권을 가로막으면서도, 자신들이 지켜야할 대목에 이르러서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③ 무기력한 한국정부

한국정부의 미군범죄에 대한 0.7%의 재판권 행사율은 한국정부가 미군범죄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실제로 일선경찰에서는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공정한 수사를 하기보다 피해자들을 무마하기에 급급하며, 심지어는 신고조차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재판권 행사에 있어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검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경미하다 하여 재판권행사를 포기해 왔다. 내국인의 경우면 당연히 구속기소되고 엄중처벌되는 사건이 미군에 의해 저질러지면 어느덧 '경미한' 사건으로 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미군범죄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외교상으로 마찰을 일으켜 한국의 국가이익이

손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미군범죄의 면죄부, 한미행정협정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미행정협정이다. 한미행정협정의 수많은 불평등 조항에 의해 미군들은 법의 심판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그 불평등성이 여론의 지탄을 받아 1991년에 개정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본문과 합의의사록은 손대지 않은 채 하위규정인 양해사항만 부분적으로 개정한 ‘껍데기 개정’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거의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러나 이것도 다른 독소조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3. 죄지는 미군들, 감옥에서는 어떻게 지내나?

한국정부가 미군들을 수감하기 위해서는 한미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서 최소한도의 수준이란 운동장이 있어야 하고 최소 72평방 피트(약 2평)의 독방과 수세식 변소, 세면대, 샤워설비 및 이불과 침대, 조리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① 천안교도소 수감 시설

95년 5월 25일 현재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미군 기결수는 모두 12명이다. 이 가운데 천안 교도소 여자(여자 감옥)에 수감된 여군 3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천안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숫자도 94년 4-5명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곳의 미군 전용 교도소는 소년 교도소의 한 사동을 격리해 마련한 독방 20여개로 이루어져 있다. 독방의 크기는 2.98평인데, 네댓평짜리 감방에서 10명 가량이 칼잠을 자야 하는 한국인 재소자들에 비하면 완전히 호텔급이라 할 수 있다.

각 방마다 수세식 양변기와 침대는 물론 라디오와 카세트, 심지어 TV까지 갖춰져 있다. 얼마 전부터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세트를 들여놓고 게임을 즐기는 미군도 여럿이다. 이들의 식사도 ‘특급’이다. 기본재료(음식)는 평택, 오산 등지의 미군 부대에서 직접 날라온다. 각종 고기와 육가공류, 야채와 밀가루 등이 주요품목이다. 별도로 마련된 전용 식당에는 가스레인지 등 조리 시설과 대형 냉장고도 갖춰져 있다. 이런 현대식 부엌에서 죄수들은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한다. 1식 3찬의 ‘짬밥’을 주는 대로 받아먹어야 하는 한국인 재소자들과는 천양지차다.

②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린 윤금이씨 살해범

92년 10월 28일 동두천에서 윤금이씨를 무참하게 살해한 미군 마클이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재 그는 지난 94년 15년 선고받아 천안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그가 저지른 범행에 비하면 죄의 대가인 15년형은 턱없이 모자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클은 지난 95년 5월 5일 뇌우치기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다.

천안 교도소장이 95.12.12 작성한 서류에는 “피고인 마클 케네스 엘과 더프 리차드씨(더프 또한 살인 미수범이다. 그는 93년 12월 16일 경기도 파주군에 소재한 에드워드 기

지앞에서 택시운전기사 한창열씨의 목을 뒤에서 찌르고 폭행을 가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천안 교도소에 수감중이다.)는 각 주한미군으로서 각 천안교도소에 복역중인 자들인 바 피고인들은 공동 모의하여 95.5.5 10:30 경 천안교도소 외국인 수용사동 제 5사에서, 당일은 어린이날로서 휴무여서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주·부식 및 편지의 전달이 다음 날로 늦추어진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의자 마클은 유리로된 커피병으로 리처드는 위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 1개를 위 교도소의 고사 박성문, 교위 송창호에게 분사하고 계속하여 위 마클은 목도 끝 식당앞에 있던 분말 소화기 한 개를 집어 위 교도관들 및 복도를 향하여 분사하는 등 공무실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아크릴창 1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 박성훈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함"이라고 사건을 보고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마클과 더프는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의 죄명으로 추가 기소되어 96년 1월 15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마클과 더프는 교도소측의 수감자 대우에 불만이 있어 난동을 부린 것이다. 그러나, 미군전용 교도소의 특혜를 볼 때, 이들의 난동이 터무니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95년 6월 4일자 일요일 신문에 따르면,

“미군 재소자들이 누리는 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재소자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사역(작업)도 이들에겐 다른 나라의 얘기일 뿐이다. 교도소측은 미군 죄수들도 예외없이 사역에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상당수의 미군들이 사역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교도관들의 귀뜸이다.”

③ 살인죄의 미군을 위해 수천만원의 들여 호화판 독방을 만든 서울구치소

〈조선일보 5월 10일자 보도〉

난방시설과 침대, 조리시설, 간단한 체력단련시설, 좌변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레저용 콘도』를 연상케하는 감방이 생겼다. 이방을 이용하는 피의자는 한국 검찰에 의해 살인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지난 2월 초 기소된 미군 헨리 매킨리씨.

매킨리씨는 구치소 수감직후인 지난 1월쯤 한미 행정협정을 근거로 구치소 시설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것, 법무부측에 따르면 그는 “시설이 엉망이다.”, “이런 상태에선 재판받을 수 없다”는 요지의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구치소 측은 이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 지난 4월 대대적인 감방수리에 들어가 최근 시설개선을 마무리했다. 서울 구치소에는 조리시설이나 간단한 체력단련시설 등은 물론 난방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다. 법무부는 이 수리비용으로 몇천만원대가 들었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매킨리 씨는 이밖에도 자신이 수감돼 있는 감방의 주변까지 모두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부분은 구치소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행협에 감방시설의 규모와 시설 등까지 세밀하게 규정돼 있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일단 한미행협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기존 규정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해 수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4. 미군 기지와 시설

▶ 주객이 전도된 미군 기지 사용

위의 글을 보면 미군이 한국내의 기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한국이 요청하면 미국이 수락하는 '주객이 전도'된 꼴을 볼 수 있다. 제 나라 제 땅을 타인이 빌어 쓰는데 땅 주인을 이를 허용하고 오히려 빌려 쓰는 미군이 이를 허락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더구나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이 명시되지 않아 우리나라 시설과 구역의 사용목적이 반드시 한반도의 안정과 관련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외국군이 한 나라에 반세기 가까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군의 작전지휘권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미군이 보유한 상황이라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살펴볼 때 상당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군이 자연스레 대한민국에 주둔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에 승리함으로써 한국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점, 둘째 1950년 한국전쟁시 남한을 도와 주었다는 점, 셋째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해 전쟁억제력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가지 논리가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베푸는 여러 가지 특혜가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주둔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미국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도 미군을 주둔시키겠다"고 밝힌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얻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또한, 주한 미군의 주둔목적이 조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한반도의 안전과 관련 없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남한의 시설과 구역은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남한에서 설령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이것은 매우 합법적인 것이다.

전국의 주요 미군기지

-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통해서 본 세계의 미군기지 -

1. 세계의 미군기지

미국은 1996년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파나마, 스페인, 터키, 벨기에, 그리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쿠바, 포르투갈, 디에고 가르샤, 온두라스, 바레인 등 세계 여러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지난 1991년 기지 임대 기한이 끝나 지금은 미군 기지가 없는 필리핀 같은 나라도 있다. 그리고 광채 럽 아직도 미국의 식민지로서 이른바 '미국령'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미군기지가 있는 대부분의 나라의 정부는 미국의 위력에 눌려 소극적이거나 예속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반해, 일반 국민들은 미군 기지로 인한 각종 피해 때문에 주둔을 반대 하고 있다.

미군 기지가 있는 각국의 기지 주변에 주민들이 당하는 피해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극심한 편이고 다른 나라들도 소음, 퇴폐, 핵 방사능 누출 위험 등 거의 비슷하게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① 외국의 미군 기지는 해당국가와 임대계약을 체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미군 기지 임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이 만료되기 몇 해 전부터 이른바 '기지 협상'을 통해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잘 알려져 있는 필리핀이 그랬고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가 그렇다. 스페인 터키 그리스 포르투갈 등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별도의 계약 없이 무기한으로 미군기지 사용 보장

그러나 미국이 지난 1953년 우리나라와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6조에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고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따라 지난 66년 7월 9일 서명하여 1967년 2월 9일부터 현재까지 발효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여러 나라의 미군 기지에 비해 우리나라의 미군기지는 영구적으로 미국의 땅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군 기지를 돌려 받는 일은 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효 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미군기지 현황

일본에는 현재 105개의 미군기지가 있고, 전체 면적은 3만 2천 4백 75ha에 달한다. 그 가운데 43개 기지 (2만 4천 2백 39ha)가 오키나와에 있다. 주일 미군기지 가운데 국유지는 5분의 1뿐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이다. 주일 미군의 전체 수는 5만여명이고 그 가운데 3만명이상이 오키나와에 있다. 기지 종사 민간인과 군속까지 합치면 오키나와에는 5만 2천여명의 미국인이 살고 있다. 지난 91년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 기지가 폐쇄되자, 그 곳에 있던 비행기와 병력이 오키나와로 이동 배치되기도 했다.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전범국인 동시에 패전국인 일본을 5년간 군정으로 다스렸다. 미군정 실시 이후 미국은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 지역을 일본에 반환하였고 오키나와가 마침내 미 군정에서 벗어난 것은 1972년 5월의 일이었다. 지난 1992년은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지 만 20년이 되던 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때를 맞춰 미·일 두 나라 정부 지도자들은 두 나라 정부가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오키나와 반환(그들은 탈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0주년을 기해 오키나와 미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② 오키나와 전투

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일본 육상에서는 거의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 일본 육상에서 벌어진 유일한 전투는 오키나와 전투뿐이었다. 1945년 3월 26일부터 6월 23일 까지 석달 반동안 벌어졌던 이 전투에 당시 일본군은 약 8만명이었고 상대 미군은 54만 8천 명이었는데 미군의 십자 포화로 오키나와 전체인구의 3분의 1인 20만여 명이 죽었다. 오키나와 지역 방위군은 계속해서 제국 군대에 공중지원을 요청했으나, 제국 군대는 오키나와의 이 절박한 요청을 일축했고, 그 사이 연합군은 오키나와를 초토화시켰다. 제국 군대는 오키나와를 제외한 주요 섬,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일본 본토'의 방어 시간을 벌기 위해 오키나와를 희생시켰던 것이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이 전투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것이다.

그 때부터 이 섬은 미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미국은 이 섬을 점령하자마자 재빨리 가데나 공항과 요미따 공항을 확장해 미군기지로 사용했다 이 기지는 1952년 까지 실시된 미 군정과 군정 뒤 바로 시작되어 1972년 까지 계속된 미국의 민간 지배를 거쳐 50년이 넘는 오늘까지 보란 듯이 남아 있다. 그 후 미군 당국은 미군 기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민의 사유 재산과 토지 소유권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키나와 전 지역에 걸쳐 기지를 구축했다.

③ 반복되는 일본정부의 배신과 계속 되는 주민들의 피해

오키나와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로 1972년 오키나와가 다시 일본 정부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이익은 다시 한 번 희생되었다. 미·일 두 나라 사이에 재산 반환 협정이 체결되기는 했으나, 이 협정은 미국이 주일 미군 기지를 폐쇄하도록 하기는 커녕 오히려 확장할 수도 있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1992년은 그동안 임대해 주던 사유지의 임대 계약이 끝나는 해였다. 이 때 땅임자 575명은 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자기 땅을 공원이나 오락시설, 도시, 농경지, 유원지 등으로 전환해서 개발 할 것을 원했다. 그러나 결국 기지 철수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으로 조금 더 연장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때부터 5년 뒤인 1997년 또 다시 계약 조건을 갱신하거나 필리핀에서처럼 미군 기지를 반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의신을 따르면 그 뒤를 1995년 5월 일본의 평화 운동가들과 시민들은 '미군 기지 반환'을 요구하며 미군 기지를 둘러싸는 14 km의 인간띠 잇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미군기지에서는 정기적으로 각종 군사훈련을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흔히 재산손실이 빚어지고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번은 5학년 여자아이가 비행중인 항공기에 떨어진 트레일러에 맞아 죽은 일도 있다. 실탄이 집과 학교 같은 건물을 꺾고 지나기도 했다. 그 때마다 미군 당국은 주민들에게 훈련 중단을 약속했으나 훈련은 계속되었고 그런 훈련에 따른 사고와 민가 인접 폭격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되었다. 미일 두 나라가 합동으로 벌이는 군사 훈련기간에는 새벽 6시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시작되어 시민들에게 갖가지 피해를 주고 있다.

2. 미군기지 반환운동

오끼나와는 한 때 '예의 바르고 평화를 사랑하는 지방'이라는 뜻을 지닌 '수레이노 쿠니'란 이름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어느 도시건 어느 마을이건 군사 기지가 조금이라도 없는 곳이 없다. 이처럼 군사 기지가 민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군사 기지 반대 주민 운동도 군사 기지 깊숙이 까지 파고들고 있다. 오끼나와에 있는 53개 지방 자치 단체 가운데 '비핵 평화지대'로 선언한 곳이 9개 시 10개 읍 12개 마을 등 31개나 된다. 때문에 군대에서 벌어지는 핵 사고를 포함하여 어떤 사건이든 섬 전 지역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 이런 사고신고를 접수하면서부터 반핵 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오끼나와 반핵 운동은 이런 반핵 활동가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1991년 10월 8일에는 오끼나와 현의 지사가 직접 나서서 사격훈련을 참관한 뒤 그 지역을 모든 학교장, 시장, 이장 등을 만나 의견을 들은 뒤 주일 미영사인 리차드 크리스텐슨 장군을 불렀다. 그리고 사격 훈련에 관해 쓴 각종 기록을 주며 훈련중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직접 미국까지 찾아가 오끼나와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오끼나와의 원주민에게 오끼나와를 돌려 주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몇몇 양심적인 관리와 하원 의원을 만나 직접 호소하였다.

계속 확산되는 대중운동

미군 기지가 있는 항구 도시 요코스카에서는 활동가들이 자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미군 기지를 촬영하고 핵무기 적재 가능성이 있는 미국 선박들의 입항을 반대하는 해상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는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시내 미군 기지 정문 앞에서 "미군 기지 반환"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20년 넘게 계속하고 있다.

특히 <요코스카 시민 모임>에서는 월남전이 한창이던 지난 1960년대 주일 미군 가운데 월남에 파병될 것이 두려워 탈영한 미군 병사들을 보호하는 운동도 벌였으며 그때 사용하던 사무실을 30년이 넘는 1995년 현재까지도 사용하며 지속적인 반 기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지금 요코다와 아즈키 가운데 하나를 돌려받아 도쿄 제 3의 국제 공항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3. 오끼나와에서 배우자

일본에서 미군 기지 반대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69년 1월의 일이다. 당시 미국의 핵 항공 모함 엔터프라이즈 호가 일본의 사세보 항에 입항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다 그 이후

가나가와 현 쓰시에 있는 탄약고 근무 미군 가족 주택 건설 계획 반대 도표의 미야게시마 미군 비행장 건설 계획 반대 아쓰기 공군 기지 소음 공해 피해 소송 등 끊임없는 합법, 비합법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반 기지 운동가들은 민간인들이 나서서 미군 기지터를 사들여 다른 평화적 용도로 사용하자는 이른바 '땅 한 평 매입 운동' 오키나와 전투의 실상을 촬영한 영화 필름을 전 주민이 함께 구입하자는 이른바 '1피트 매입 운동'등 참신한 기획을 통해 거의 전 주민의 반 미군 기지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 미국의 사과를 받아낸 오키나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반환 운동은 95년 9월에 발생한 주일미군의 국민학교 여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으로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어찌보면 단순한 미군범죄에서 출발된 대중적인 운동은 미군기지 반환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지난해 가을 8만 5천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쫓겨가 있었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용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서명을 일본정부의 회유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하였다. 뿐만아니라 오키나와 지사는 급히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의회와 주요 정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오키나와 주민들의 피해실태를 알리고 미군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미국은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주일 미군사령관, 국무장관을 비롯 클린턴 대통령까지 직접 일본 국민에게 미군범죄에 대해 사죄하였고 이틀에 걸쳐 '주일미군 반성의날'을 선포 시행하는 등의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러한 개량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투쟁해 나갔다.

96년 4월 클린턴 대통령의 방일을 맞아 오키나와 주민들은 9만 여명이 권기하여 미국의 항복을 받아냈다 미국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동 20%를 5~7년 내에 주민들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이다.

4. 미군 공여지의 실태와 문제점

① 미군 공여지란?

미군 공여지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에 있어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양도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② 미군 공여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둘. 국민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

셋. 미군 공여지의 실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넷.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PA)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두 레 방

480-060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116번지/전화-사무실 (0351)841-6946
/전송(0351)841-2608 통신ID DUREBANG (하이텔)

두레방은 1996년 3월 17일, 의정부 가능동에 문을 연지 올해로 꼭 1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간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지촌 여성운동 인자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대사업을 펼치면서 사회에 기지촌 문제를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두레방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놀이방, 공부방, 공동식사, 공예교실(주 2회), 두레방 빵 프로그램등이 있습니다. 특히 빵 프로그램은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현장여성들의 전업 프로그램으로서 훌륭한 보기가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두레방은 95년까지 의정부, 동두천 두 곳에서 활동을 펼쳤으나 현재는 의정부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지촌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아파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현장 실무자들과 여성들과의 믿음으로 극복해 내고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그 안에서 상처를 극복해내고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중에서 학생들의 노력이 소중한게 들어있습니다.

오래히 여름이면 찾아오는 학생들, 더운 여름 일주일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굶은 땀방울 흘리며 고생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여성들은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워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간에 그토록 짧은 기간안에 정이 든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기지촌 활동은 그런 활동입니다.

가슴과 가슴으로 느끼는 활동이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새롭게 기활을 통해서 기지촌과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정립해 나가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불쌍하다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님을, 무조건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님을 절실히 깨닫는 그런 활동입니다.

두레방은 이러 마음가짐으로 1997년 8회 여름기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꾸준한 애정으로 묵이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활을 했으면 합니다. 비록 적은 인원과 짧은 기간이지만 기간이 길다고 해서,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감동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동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 움 터

(480-034) 경기도 동두천시 생면 4동 541-39 11/4 (0351)867-4655
통신ID swoom(천리안) 대표:김현선

이 자료는 새움터의 설립배경과 활동을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새움이 돋는 곳

새움터는 기지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늘상 겪는 문제를 서로 돕고 해결하는 것과 기지촌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목소리를 내며 차츰차츰 자신의 처지를 바꿔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새움’이라는 말은 ‘새싹’의 우리말이며 새움터는 ‘새움이 돋는 곳’이라는 뜻으로 소외된 기지촌에 사랑과 희망이 움터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1945년, 처음 미군이 들어 온 이후부터 한국의 기지촌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100여개의 미군기지과 4만여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기지촌이란 미군기지 주변에 생겨난 주거지역과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말합니다. 기지촌에는 미군들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사회는 이들의 어려움을 애써 감추어 왔습니다.

새움터는 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여성들을 위해 일합니다. 한국사회의 모순에 의해, 근 누구도 원치 않는 기지촌여성의 굴레를 지고 살아가는 여성들은 미군과, 정부, 그리고 전체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설립배경

새움터는 오래전부터 기지촌 지역에서 일해 온 활동가들의 뜻과 기지촌여성들의 바람이 서로 만나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기지촌지역인 의정부, 동두천, 송탄 등지에서 활동하며 기지촌 여성들과 아이들의 삶에 귀 기울였던 활동가들이 모여 이들과 함께 할 단체가 더 여러지역에 생겨야 한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 첫 시도로 동두천에 새움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새움터는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6년 10월 동두천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새움터의 대표는 그간 기지촌여성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함께 싸워 온 김현선씨이며 그와 함께 그 누구보다도 먼저 기지촌여성문제에 뛰어 든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젊은 조직이지요. 새움터가 공간을 구하고 드디어 개원식을 하게되었을 때 단체로 몰려 온 기지촌여성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젊은 니들이 겁도 없이 일을 치는구나. 대견스러워...”

이렇게 말한 언니들은 자신도 생활이 어려워면서도 스스로 후원회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처음 이곳에 입주했을 때 한무리의 동네아이들이 몰려 왔던 것도 기억납니다

“우리 언제부터 와서 공부하면 되나요?”

땀방한 아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더라구요. 그라다보니 생각보다 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움터의 활동

새움터를 준비하면서 지금 기지촌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게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기지촌에서 일하면서 이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는 것 (미군범죄, 포주로부터의 탈출 등의 위기상황) 그리고 늘상 겪는 문제 (아이들 교육, 여성자신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움터는 밤보육놀이방, 공부방, 기지촌여성상담, 연대사업, 기지촌문제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 등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업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건강한 노동을 실천하고, 스스로 만든 작은 조직들을 통해 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힘 모으는 일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기지촌 여성문제 또한 다른 사회문제와 결코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나아가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기도 합니다.

새움터는 매매춘 관련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안을 함께 세우며 갑작스레 일어나는 매춘여성들의 문제에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각 여성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기지촌여성문제 역시 함께 풀어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알리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1997년 1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참관단체로 가입하였습니다. 아직은 작은 단체이지만 소중한 여성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한 그네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것입니다.

기지촌여성운동, 참 낯선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움터의 할 일이기도 합니다. 낯설지 않는 운동으로, 또한 낯설어서는 안되는 운동으로서의 기지촌여성운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널려 있는 미군기지 주변의 기지촌에 비하면 이를 위해 일하는 지역단체 또는 여성단체가 부족한 실정에서는 새움터와 같은 단체의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1996년 12월에는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제 1 회 기지촌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제 1 회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지촌 여성문제는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활동가들과 관심있는 사람 몇몇과 여성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 또는 학자들의 연구대상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지촌 여성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도 낯설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감춰져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1 회 기지촌문화제는 그런 이유에서 이제는 당당히 목소리를 내자는 새움터의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기지촌문제를 모두와 함께 얘기하고 또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일 것을 조용히 권유하는 자리였지요.

지금은 여성들의 전업사업이 될 '허브사업'을 준비하며 우리의 희망을 다지고 있습니다. 새움터는 앞으로도 기지촌현장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하는 바람으로, 또한 더 이상 소외된 사람들이 아닌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일할 것입니다..

발로 찾아간 기지촌 - 전국 기지촌 실태 조사

1. 떠오르는 국제도시 송탄

송탄 기지촌은 오산 55 공군부대옆에 형성되어 있다. 송탄 기지촌은 상업이 활발하게 발달해서 주변 지역의 중심이 되어 있다. 다른 지역의 미군들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즐기 위해 송탄을 찾으며 관광객들이나 한국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미군클럽과 상점들이 뒤섞여 있는 거리에서 많은 중, 고등 학생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구경하며 걸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송탄은 기존의 '전통형 매춘' 과 1990년대 들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형 매춘'이 뒤섞여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기지 철수 후에도 주변 지역의 상업 중심 도시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클럽은 49개가 있으며 여관도 16개가 있다. 그중 '골든 게이트(Golden Gate)'를 방문하였는데 그 곳에는 30명 남짓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었다. '앤서'들은 20대였고 웨이트리스들은 50-70대 여성들이었다. 댄서들은 음악에 맞춰 한국식 춤을 추며 교대했다.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미군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거나 댄서들끼리 앉아 있었다. 춤이 야할수록 미군들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미군의 신청은 받은 댄서는 춤이 끝나면 웨이트리스의 소개로 그 미군을 접대한다.

2. 평택 안정리

평택 역에서 차를 타고 15분 정도 가면 시골길 같지 않은 4차선 도로가 나오는데 그 길 끝에 미군부대가 있다. 이 부대는 공군 제 5842부대로 일명 '케이 식스 (K-6)' 라고 한다. 부대 큰길은 기지촌이라는 느낌을 받기 어려운 주택, 빌라, 음식점, 한국 술집들이 있고 부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미군들을 위한 상가들과 클럽들이 나타난다. 부대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다. 이 곳에는 룬스타, 스테레오, 아라비안나이트 등의 클럽 20개가 있고, 200명이 넘는 클럽여성들이 있다.

이중 세클럽은 '락 앤 롤 (R&R)'클럽인데 이곳에는 내국인 출입 금지 팻말은 없었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팻말만 있었다. 이곳에는 여러 스낵 편의점과, 여성 의류 가게, 커피숍 등이 있었는데 클럽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영업을 한다. 청소년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로얄장, 대화장, 중앙여관 등 숙박 시설들의 숙박대장을 확인해 보니 모두 미군들의 서명이 있었다. 그곳은 한국 여성들이 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여관들이었다. 숙박비도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허름한 여관도 미군과 기지촌 여성들이 들어올 때는 4만원을 넘게 받았다. 보통 여관 숙박비가 2만원인 것을 볼 때 여관 주인과 기지촌 여성들이 일종의 계약을 하고 함께 장사하는 것 같았다. 맥심 클럽은 1층은 디스코 클럽이고 2층은 컨트리 클럽이었다. 꽤 큰 규모의 클럽이었고 7-8명의 댄서들이 5분마다 번갈아 춤을 추고 있었다. 5-6명의 미군과 몇 명의 한국 남자들이 손님으로 있었는데 40-50대의 웨이트리스들도 눈에 띄었다. 동남아시아 여성도 2명이 있었다.

3. 은마는 오지 않는다-과주, 문산

① 선유리 기지촌

문산 선유리는 과주읍 법원리에서 문산, 임진각, 판문점으로 통하는 최전방 지역이다. 2개의 미군부대가 자리잡고 있지만 미군의 수가 적어서 기지촌으로 나오는 미군들은 아주 적다. 클럽에서 만난 한 여성은 미군들의 수가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 기지촌까지 나오는 미군은 20-30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많은 클럽들이 문을 닫았고 지금은 두 곳뿐인 클럽들이 주말만 되면 미군들로 가득 찬다. 클럽 외에 10여개 정도의 단란주점과 노래방들이 있다. 예전에는 클럽이었을 법한 유흥업소인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서서히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유흥가로 변해가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

② 봉일천 기지촌

봉일천은 서울에서 20분 거리이고 금촌, 문산, 임진각을 통하는 길로서 캠프 하우스(Camp Howze) 옆에 만들어진 조그만 기지촌이다. 미군의 수가 줄어들면서 클럽들이 많이 문을 닫았지만 시내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국인을 상대하는 업소로 변경하지는 못한 것 같다.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③ 악명 높았던 용주골

문산에는 지금은 사라져 버린 기지촌인 용주골이 있다. 여성들이 기지촌으로 인신 매매 당할 때 가장 먼저 끌려오는 곳이 이곳이었다. 기지촌 여성들에 의하면 이 곳에 한 번 끌려오면 죽거나 다른 기지촌으로 팔려가지 않는 한 벗어날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한다. 클럽보다는 포주집들이 많이 있었고 아가씨들을 사려는 다른 지역의 포주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미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그렇게도 악명 높았던 용주골 기지촌도 사라졌다. 기지촌 여성들은 새 삶을 찾지 못하고 대부분 동두천의 기지촌으로 이동하였다. 지금의 용주골은 어떠한가. 천호동, 청량리 등의 서울 매매촌 지역의 단속을 피해 새로움 집창가로 자리잡고 있다.

- 한국 사회의 매매춘 -

1. 들어가며

계급사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여성억압은 그 사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띄우며 교묘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가운데 여성억압의 가장 첨예한 형태인 매매춘은 그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존재해 왔는데, 고대에는 '이난타', '헤타이라' 라고 불리는 매춘여성이 존재했으며, 중세에 와서는 매춘여성이 '궁전의 하수구'로 비유되면서 그 필요성이 역설 되기도 했다. 또 현대에 와서는 포르노 모델, 향락업소의 호스테스, 스트립걸, 콜걸 등 그 유형은 다양화되어 존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여성의 억압을 우리 사회 전체의 명맥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과 미국이 아시아의 지배자로 부각시키는 일본의 영향속에서 파악함을 전제로 하며, 또한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매매춘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성이 상품으로써 가치가 있는 사회에서 매매춘의 가능성은 어느 여성에게나 잠재되어 있다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한다.

◎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 매춘여성을 일컫는 용어는 창녀, 갈보, 윤락녀, 거리의 여자 등 다양하다. 영어의 'prostitution'의 어원은 아테네에서 '매물'이란 의미의 'prostare'이며, 이는 '앞에 놓음'이란 의미로써 '제공, 저당, 담보'와 통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개념은 주로 성을 판매하는 행위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성관계의 형태를 띤 매매춘은 단지 파는 행위 일 뿐만 아니라 사는 행위이기도 하다. 즉, 성과 돈을 매개로 사고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문에 賣春은 賣買春이라고 불리어져야 한다.

2. 매매춘 실태와 원인

한국사회에서 매매춘은 그 발생배경과 실태를 중심으로 하여 대략적으로 '전통형 매매춘' 과 '산업형 매매춘' 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전통형 매매춘

전통형 매매춘은 집단적으로 포주와의 인신매매 관계에 묶여 있는 전문적 매춘여성을 일컫는데, '양공주'라 불리는 기지춘여성, 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춘, 영등호, 용산역 등 특정지역 내 매춘여성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들의 매춘동기는 절대적 빈곤이며 학력이 낮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하급계층이 많다. 또한 수입, 외모에 있어서도 산업형 매춘여성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전통형매매춘이 확대된 시기는 일제치하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매매춘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침탈과 함께 일본의 저급창녀들이 한국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각 도시에는 유곽이 설치되었고 창녀촌이 생겨났다. 또한 일제국주의의

침략에 따른 식민지 사회구조의 형성은 한국민족을 빈민화시켜 식민자 착취로 궁핍해진 조선의 가난한 여인들이 유곽에 팔려와서 매춘을 하게 만들었다. 이는 유곽의 매춘여성의 수를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발전하여 1916년에 이르러서 정부는 경무총감 부령으로 『유곽의 창기 취제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곧 매매춘의 합법화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서 사회 요소요소에 공창이 설치되었다.

해방 후 일본이 물러가고 공창은 폐지되었으나, 이후 국토분단과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계속 미군기지가 주둔하게 되었다. 이는 기지촌이라는 또다른 형태의 매매춘을 형성시켰다.

이와같이 제국주의, 전쟁 등의 폭력성 앞에서 여성의 성은 착취되어 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은 60만명의 장정들이 3년간 군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존속되었다. 이는 광범위하게 매매춘군을 형성, 유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매매춘의 유지, 확산은 과거의 식민지적 경험, 미군주둔, 남북분단으로 인한 3년간의 군복무 등에 의해서 확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산업형 매매춘

산업형매매춘은 한국의 왜곡된 경제구조 정책으로 인해서 확대, 다양화된 매매춘 유형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매매춘은 향락산업이라는 미명하에 70년대 이후 급성장하였다. 외관상으로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사업장이지만 실상은 비가시적으로 매매춘이 행해지고 있는 장소이다. 즉 '신종 매매춘'의 형태로써 매매춘현상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는 관광기생의 형태로 호스테스, 안마사, 면도사, 맛사지걸, 콜걸 등의 형태로 다양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수입,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외모, 교양, 지적매력 또한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 산업형매매춘이 확대된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기생관광의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다.

1960년대 초,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수출부진, 외자관련기업의 부실화 등 한국경제가 파탄에 이르자 정부는 외자유지정책을 차관에서 직접투자로 전환하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흔히 '무공해 외화획득산업'이라고 불리어 온 관광산업에 관심을 돌렸다. 관광기생은 바로 외화획득이란 명목으로 정부가 인정한 매매춘으로, 외국인 상대의 매춘여성은 특정지역이나 특수관광호텔에서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적용이 보류되었다. 심지어 정부는 관광기생을 상대로 한 소양교육 강화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본 여성이 외국인을 상대로 몸을 팔아 경제건설을 이룩하여 오늘날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매매춘 행위는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비생산적인 향락산업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비생산적인 향락산업이 팽창하는 이유는 이에대한 투자가 생산적인 산업투자에 비하여 효과적인 이윤을 내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은 70년대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재벌위주의 왜곡된 경제구조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도태를 가져왔고, 이에 중소기업가들은 눈을 돌려 안전투자로 손쉽고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향락산업에 투자를 하였다.

이는 곧 여성의 성을 상품화 시키는 향락산업의 증대를 가져왔다.

셋째, 차별적인 여성노동시장을 들 수 있다.

노동시장의 성차별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70년대 들어 접객서비스업 부분의 수

요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이 성이 상품화된 직종으로 유입되는 큰 요인이 된다. 대다수 여성들이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고 그나마 고학력층은 취업자체가 어려워 여성이면 누구나 자아실현요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필요한 계기와 적절한 대가만 주어진다면 자신의 성의 상품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비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게끔 하는 것이다.

넷째, 남녀차별적인 이중적 성윤리의 온존이다.

‘매매춘은 필요악’이라는 논리는 일부일처제의 존속을 위해, 남성의 참을수 없는(?) 성욕충족을 위해, 남성의 그 욕구로부터 일반여성의 정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모든시대, 모든민족을 막론하고 지구상에 존재해 왔다는 등의 매매춘을 정당화시키는 성차별적이고 이중적인 성윤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 논리는 우리 사회에서 매매춘을 합리화하고 조장시키며 결국 오늘날 성의 상품화를 사회전체가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 얼마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통계에서 매매춘은 필요악이라고 응답한 수치가 전체의 절반을 웃돈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이중적인 성윤리의 테두리 안에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순결이데올로기 안에 너무나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암담한 현실을 반영한다. ◀

또한 일본과 미국의 저속한 문화의 무차별적인 유입으로 인한 도색적이고 퇴폐적인 문화의 영향은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문화가 거의 전무한 우리사회에 깊게 침투되어 있다.

3. 매매춘 어떻게 없앨 것인가?

매매춘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우선, 중국혁명기에 실행되었던 매매춘근절과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 대안을 찾아보자.

중국혁명 당시 상해의 매춘여성 수는 세계 8대도시 중 최고치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루어진 ‘창녀개조사업’은 구사회가 남긴 모든 부패잔재를 일소하고 이러한 방식이 곧 무산계급의 혁명적 인도주의를 가져온다는 이념 하에서 이루어졌는데, 매매춘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매춘여성의 진로를 끝까지 마련해주는 등 개조의 전실함이 있었다. 개조사업의 원칙은 『성병치료·취업마련·결혼문제 해결』이었다.

매매춘 금지조치에 대한 상해시의 준비는 상당히 치밀했다고 평가되는데, 첫째는 유곽의 자동폐업과 자발적 탈출유도, 둘째는 매춘여성의 관리를 위한 임시규정의 공포, 셋째는 매춘생활을 청산한 여성들의 학습 및 기능훈련 강화, 넷째는 매춘여성들이 피해자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그들의 성분을 ‘유민’, ‘도시빈민’으로 분류함으로써 성일탈자로서의 정체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다섯째는 길거리의 매춘여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또한 매춘여성교화소는 정부 차원에서부터 매춘여성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확실히 하는 모습이었으며, 시공안국은 시민의 고발에 의해 매춘가의 포주를 체포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중국에서 매춘여성 개조사업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 그들을 생산적인 노동현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노동을 함으로써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정책적인 이념에 있다.

제국주의, 아편등에 의해서 수십만명의 매춘여성이 존재했던 중국의 매춘여성 개조사업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① 열악한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향락업소의 화려함이나 높은 수입에 유혹되지 않도록 여성이 경제관계에서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 매매춘의 확산을 방지하는 원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경제력 확보는 여성의 성적인 주체성까지도 담보해 내어야 한다.

② 자본의 비대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도태를 방지해야 한다.

재벌위주의 산업구조는 중소기업이 향락산업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 과정에서 상업자본가들이 여성을 천시하는 가부장적인 성문화를 이용하여 남성위주의 향락산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많은 향락업소는 모집 광고나 종업원들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해 처해 있는 여성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재벌위주의 파편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더이상의 도태를 막고 향락산업으로의 투자를 막아야 한다.

③ 기업의 접대문화와 관련한 향락문화의 증대를 방지해야 한다.

서울 YMCA의 조사결과를 보면 남성들이 향락업소를 찾는 이유는 인간관계 도모, 스트레스 해소, 사업상 접대, 성적불만의 해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기업의 접대문화는 향락산업 증대에 일조를 가하고 있다.

이제 기업의 접대문화는 다른 대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④ 부패한 관과 선도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고 매춘여성의 자립, 갱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업주와 경찰, 이 둘의 공존공생은 어떤 형태로든 매매춘을 유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향락업소와 매매춘지역의 수많은 미성년들의 매매춘을 묵인하고 있다.

정부는 부패할대로 부패한 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의 부패를 척결하는 작업과 함께 기존의 선도기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매춘여성이나 비행소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설립된 선도기관은 선도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반인권적인 기관으로 악명 높다. 매춘여성의 대부분이 “그곳에 가느니 감방살이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선도기관은 두려운 곳이다. 이처럼 현존하고 있는 선도기관은 이들의 생활을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생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도기관이 이런 실정이라면, 기존의 선도기관에 대한 투자를 매춘여성의 자립, 갱생을 위한 대책마련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위의 해결방안들에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위한 교육제도와 비행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매춘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고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그 원인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매춘여성들의 여러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남녀차별적이고 개인적이며 향락적인 왜곡된 성의식을 없애나갈 수 있는 작은 실천과 사회적인 운동을 벌여나가며, 한국여성들을 짓밟는 미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 기지촌 기록영화 -

1. 이방의 여인들(The Women Outside)

감독 : JT다카키, 박혜정

●●● 만든사람 ●●●

〈이방의 여인들〉은 미국독립영화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JT다카키와 박혜정이 만들었다. 이들은 주로 소외된 계층의 삶속에 들어가 이를 영화에 담는 작업을 해왔다.

다카키는 한국의 분단문제에 관한 기록영화를 만들 때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기지촌의 모습을 보고 그 심각성을 무척 놀랐다. 이때 다카키가 촬영한 기지촌의 모습을 모고 박혜정이 기지촌에 관련한 기록영화를 만들자는 제안을 다카키에게 했다. 그당시 박혜정은 영화제작외에도 제3세계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국제결혼하여 미국에 온후 이혼당하고 미국땅에서 다시 매춘을 하게 되는 여성들을 돕고 있었고 기지촌여성의 현실에 가슴아파하고 있었다.

〈이방의 여인들〉은 '다시는 나와같은 불행한 여성들이 생기지 말았으면'하는 기지촌 여성들의 바람과 '이분들의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위해 영화라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겠다'하는 감독들의 의지가 만나서 만들어졌다.

◆◆◆ 미리보기 ◆◆◆

〈이방의 여인들〉은 동두천 미군전용클럽에서 일했던 김양향씨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김씨는 착한딸이 되기위해 일자리를 구하다가 조직적인 인신매매단에 걸려 기지촌으로 팔려간다. 강간을 당하고 더러운 여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자살을 시도하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진다. 그러던중 한 학생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김씨는 가족들의 외면으로 인해 결국 다시 기지촌으로 되돌아간다.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에 가지만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당하고 아들마저 빼앗긴 채 한국으로 추방된다.

김씨뿐 아니라 〈이방의 여인들〉에 나오는 여성들은 어떻게 기지촌에 유입되었는지,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국제결혼하여 미국에 간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는 바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속에서 착취당하는 한국여성들의

모습이다. 아들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억지로 유죄로 몰고가는 미국의 재판정에서 송중순씨가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울부짖는 모습은 이시대를 살아가는 기지촌 여성들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대변하고 있다.

김씨는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한다. “만약 내가 딸을 낳으면 제 과거를 모두 말해줄거예요. 착한 여자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 윤금이씨 그리고 이기순씨 ■■■

〈이방의 여인들〉의 배급은 ‘제3세계 뉴스릴’이 맡았으며 미국과 일본의 여러 영화제에 출품되었다. 1996년 7월에는 미국공영텔레비전인 PBS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방송되었다. 1996년 서울에서 열린 인권영화제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윤금이씨가 1992년 미군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바로 그곳 동두천에서 이번에는 이기순씨가 또 다시 미군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윤금이씨 사건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기지촌여성들의 삶과 미군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기지촌여성들과 아이들이 처한 인권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방의 여인들〉은 ‘제2의 정신대’라고 할 수 있는 기지촌여성들의 감춰져있던 이야기들이 그들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직접 전달된다. 〈이방의 여인들〉은 관객을 향해 더 이상 기지촌여성들을 이방인으로 보지말고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을 것을, 더 나아가 기지촌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 일본군성노예,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하여 -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결성이 된후 세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같은 반인간적 범죄행위는 인류역사에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명예와 존엄성을 되찾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가장 처절한 피해현실에 대해서조차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 배상을 받지 못한 한일관계는 평등한 한일관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을 우리 운동의 힘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한일관계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졌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아시아의 연대와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포함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없이 진행되는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는 일본군국주의의 부활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속에서 은폐되어 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간의 그리고 아시아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점과 한일간의 평등관계정립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코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를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상규명, 범죄인정, 국회결의 사죄와 개인사죄,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 위령비 건립,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이라는 구체적인 7대 요구를 제시하며 활동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일본 정부 활동, 대UN 활동 및 국제 활동, 아시아 피해자 및 일본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피해자 할머니의 생활보호활동등을 벌여왔다.

특히 얼마전 일본정부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도 하지않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할머니들은 일본의 범죄 인정과 법적 배상의 명목이 아닌 어떠한 돈도 받지 않겠다고 일본정부에게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할머니들을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해 '시민연대'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5월까지 모금운동을 진행하면서 1억 6천이 넘는 금액을 모금하였다. 이렇게 할머니들이 나서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수요시위를 시작으로 여러 활동들을 벌여나가고 있다.

지금은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의 측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단체들이 국제 노동기구 헌장 제26조에 의한 제소로써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한 강제노동금지조약 불이행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유엔의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ILO에 제소하는 방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확산과 국제적 압력을 가증시킬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당시 연합국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내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보존하기 위해 자료관을 준비하고 특히 일본안에서는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게재함으로써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막아내고 모든 일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서 기간 진행되어왔던 민간기금 철회와 특별법배상 요구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가장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이 범죄행위가 다시는 역사에서 되풀이되지 않기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행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야 하고, 특히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때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간적 존엄성을 되찾아야 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절박감으로 이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할머니들의 용기와 의지를 늘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이 운동을 펼쳐나가고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 주요 미군 범죄 사례 -

① 이것이 시작이었다.

45년 9월 8일 인천항에는 '해방군'인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이 나와 있었다. 그러나 경비를 맡은 일본군이 환영인파에 총격을 가해 조선노조 인천 중앙위원회 위원장 권평근 씨등 두 명의 한국인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미군도 일본군의 총격에 항의하는 한국인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쫓아내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45년 11월 17일 오후 1시 미군들은 '미군정 반대', '인민위원회 사수'를 외치던 전북 남원군 산동면 부절리 박병갑씨 (18) 등 3명을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7, 8명을 부상시켰다. 46년과 47년에 여섯명의 농부가 미군 공출독려대가 발사한 총에 죽어갔다.

② 1957년 한국어린이 사냥의 해

7일 열린 미군군법 회의에서는 세 살난 어린이 김용호를 살해한 도널드 E. 파세트 이등병에게 무죄를 언도하였다. 그러나 파세트 이등병(19)은 오발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봉급의 2/3을 몰수상했다. 김용호 어린이는 지난 7월 6일 인천에서 송유관을 경비중이던 파세트군이 끈 카빈탄에 머리를 맞아 즉사하였던 것이다. 미군당국과 파세트 이등병은 다같이 전기사고가 오발을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아일보 1957. 8. 11)

③ 알몸으로 벗겨지고, 턱은 으스러져...

"빨래터에 가보니 끔찍해서 차마 눈을 못뺐어요. 옷은 하나도 안 남기고 흘랑 벗겨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강간을 당한거야... 아무려면 여자 쪽에서 그냥 있었겠어요. 몸 부립치고 그랬겠제... 그러니까 총대로다가 아래에서 위로 짓이겼나봐, 턱이 다 으스러져 나가버리고... 찢겨진 옷과 개울가에는 피가 강물같이 흐르고.. 그러니 목숨이 그저 붙어 있었겠어요? (1957년 3월 11일 파주에서 일어난 이애도리, 최순희씨 강간살해 사건에 대한 동네 주민 이순규씨의 증언)

④ 약초캐던 여인 10여명에게 당해...

60년에는 한 여인이 무려 10명의 미군들에게 윤간당한 망행이 저질러졌다. 스미드 상병 등 미군 10명은 연내에 잘 아는 미군을 만나러 간 파주군 임진면 백종남 여인(35)을 부대안에 있는 당구장으로 끌고가 차례로 욕을 보였다.

71년 10월 4일 미 유도탄부대 D중대 소속 윌리 G. 라세트 일병(21) 등 미군 8명은 영등포구 우면동 뒷산에서 약초를 캐던 이순도 여인(31)을 발견했다. 미군들은 이여인을 붙잡아 입을 수건으로 틀어 막고 8명이 교대로 강간을 했다. 게다가 정신을 잃은 이 여인의 주머니에서 현금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⑤ 인간사냥-파주 나무꾼 사건

62년 1월 6일 경기도 파주군 진동면 하포리 뒷산, 결혼 3개월 채를 맞고 있던 황광길

궁에 콜라 병이 박혀있었고 우산대가 항문에서 직장까지 약 27cm가량 박혀 있었으며 온 몸은 흰 세제가루로 뒤덮혀 있었고 입에는 성냥개비가 물려진 채로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처참한 상태였다. 이 엽기적인 사건의 살해범은 주한 미 2사단 제 20보병연대 5대대 본부중대 소속의 이병 케네스 마클(당시 20세)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근무지를 무단히 탈해 술을 마시고 윤금이씨를 만나 그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려다 사소한 시비로 다투다 이같은 끔직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⑪ 평생을 정신이상으로 살아야 하는 김국혜씨

1993년 5월 29일 서울 서초동에서 '레벤호프'를 경영하고 있던 김국혜(53)씨는 미군병사 살로이 존 로저 병자에게 야만적인 폭행을 당해 뇌졸중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했다. 사건 당시 로저 병장은 '파리약 깡통'과 주먹, 발로 피해자가 정신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타하였으며 범행후 도주하였다. 김국혜씨는 사건 발생 후 12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어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 등을 받았으나 뇌를 크게 다쳐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채 살아야 할 형편이다

⑫ 택시강도로 돌변한 미군

1993년 12월 16일 0시 15분경 피해자 한창열씨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에드워드 미군부대 정문앞에서 미군2명이 승차하였는데 브리안은 택시 앞좌석에 리차드는 뒷좌석에 앉았다. 승차후 미군들은 자기들끼리 영어로 말을 주고 받아 뒷좌석의 리차드가 칼로 찌르면 앞좌석의 브리안이 운전대를 잡고 차를 세운 이후 돈을 빼앗아 달아나기로 약속하고, 2km가량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리차드가 다짜고짜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이 순간 칼에 찔린 피해자가 목에 꽂힌 칼을 빼앗고 소리치며 차를 정지시키자 미군들은 차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금촌읍 서울 저형외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가 목을 칼로 찔린 자상은 폭 4cm, 길이 9.5cm로써 제 번째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부 신경이 부분 파열되는 등 전치 12주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⑬ 미군 헌병대의 세 모녀 감금, 폭행사건

94년 10월 25일 서울 한남동 한남빌리지 9외인 주택)에서 한국인 세 모녀가 미군 헌병대에 의해 5시간 동안 불법 감금조사를 받고, 폭행을 당했다. 미군과 국제결혼한 딸 설은하(40)씨가 살고 있는 외인 주택을 막내딸 설은주(30)씨와 함께 방문했던 김금순(68)씨는 노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외인주택 정문을 나서던 중 '미군 물품 판매상'이라는 누명을 쓰고 미헌병들에게 연행되었다. 당시 김금순씨는 노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해 드리라며 설은하씨가 준 찹쌀과 쇠고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군은 이를 빌미삼아 연행것이다. 이를 항의하던 두 딸은 그림중사 등 미 헌병 4명에 의해 폭행당하고 강제로 수갑이 채워진 채 김금순씨와 함께시간 동안 강제 구금,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세 모녀의 혐의가 없자 연행 5시간만에 한국경찰에 인도했다. 그것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운 채로...

⑭ 총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95년 5월 19일 오후 10시 40분에 총무로 지하철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조정국 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혀 불구속 기소된 미 8군 헌병대

플랭크 골리나, 도어 게리 병장에 대한 첫 공판이 10월 12일 서울 지법에서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자신들은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한국인들한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⑮ 이웃이라 인사했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강씨는 지난 1월 21일 새벽 2시께 오산 미국 공군기지 앞에서 미군들과 시비가 붙었다. 일행 중 백인 병사가 강씨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서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걸었는데 미군들은 이를 시비거는 것을 생각한 것이다. 그 결과 강씨는 미군 일행중 비비올 데이 라는 병사에게 멱살을 잡혀 차도로 내동댕이 쳐지는 봉변을 당했다. 불행히도 지나던 차와 충돌한 강씨는 뇌를 크게 다쳐 혼수상태에서 인근 대성병원에 실려갔다. 대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강씨는 현대 정신이상자가 외어 병석에 누워있는 사태다. 강씨를 차도로 떠민 비비올 데이 병장은 현재 평택 주둔 미군 수사당국이 구금하고 있다. 수원 지검의 한미행정협정 담당자는 “가해 미군을 폭행죄로 입건했으나 아직 기소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⑯ 폭행, 협박, 강간으로 얼룩진 9개월

사건의 피해자는 윤 모씨 (여 25). 백화점 판매원이던 그녀는 지난해 4월 친구들과 어울려 서울 이태원에 놀러갔다가 용산 미 8군 군속 (초청 계약자)으로 근무하는 대니얼 토머스 테일러씨 (24)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 뒤에도 윤씨는 미군을 사귀는 친구들과 함께 몇차례 이태원을 찾아 미군들과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자기가 점찍은 여자이니 둘이서만 만나자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윤씨가 이에 반발하자 대니얼은 가지고 있던 군용 칼로 자기 어깨에 자해한 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윤씨를 찌르겠다고 협박했고 놀란 윤씨는 그 후 그를 피해 다녀야 했다.

그러나 6월 들어 기어이 일은 터지고야 말았다. 친구들과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윤씨를 발견한 대니얼이 그녀를 다짜고짜 끌어내 근처 골목으로 데려가 온갖 폭행을 가하고 쓰러진 윤씨를 골목 여관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했다. 대니얼은 카메라까지 준비해 윤씨의 나체를 찍고 자신이 윤씨를 덮치는 장면까지 한손으로 카메라를 들어 찍었다. 윤씨는 반항하다 얻어맞아 왼쪽 고막이 터졌다.

이날 밤 10시께 풀려난 윤씨는 그 길로 용산 경찰서 관할 용암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했다. 뒤따라 들어온 대니얼은 윤씨가 자기 애인인데 미쳤다고 우겨댔다. 파출소측은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며 윤씨를 되돌려 보냈다. 기고 만장해진 대니얼은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성폭행 장면이 든 윤씨의 나체 사진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틈만나면 윤씨를 불러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웠다.

대니얼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9월 남대문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윤씨를 창녀라고 주장하는 대니얼의 말만을 믿고 도리어 윤씨를 부녀 보호소에 처넣겠다고 사과문을 쓰고 나가라고 했다.

그 뒤 윤씨는 대니얼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필름과 사진 한 장씩을 빼내고 몰래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가 대니얼의 말을 녹음하기도하여 첫 성폭행 때 찍힌 나체사진 40장과 필름, 사진 공개를 미끼로 돈(300만원)을 요구한 말을 녹음할 것 등의 범행증거를 모았다. 이를 토대로 윤씨는 지난 1월 9일 용산 경찰서 의사계에 찾아가 고소장을 썼다.

이 사건은 2월 20일자고 강간죄 폭행죄가 적용되어 대니얼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현재 윤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니얼의 보복이다. 사건이 송치됐는데도 가해자인 대니얼은 버젓이 서울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씨는 자신이 보호받을 길이 없겠는가를 묻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받기는 어렵다. 대니얼이 한미행정협정의 적용을 받는 미군군속이기 때문이다. 한국 수사기관이 그를 체포, 감금해야 윤씨가 보복을 피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최종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미군은 한 사람도 없다.

현재 한국 경찰 당국은 미군 당국에 대니얼의 출국 금지만을 요구해 둔 상태이다. 따라서 고소 후에도 대니얼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대니얼은 미군 군속이지만 미국법으로는 군법 회부 대상이 도리 수 없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미군 당국도 그를 구금할 수 없다. 본국 송환만 가능할 뿐이다. 한국 남성이 대니얼과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증벌로 다스려지겠지만 미군은 이처럼 자유롭다. 바로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 때문이다.

⑩ 주한 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72번지 에바다 농아원, 농아자들의 희망의 자리가 되어야 할 이곳은 말 못하는 농아원생들의 피맺힌 한들이 멍울져 슬픔과 서러움이 얼룩진 곳이다.

에바다 노아원 최성창 이사장과 그 일가는 에바다 특수학교와 농아원의 각종직책을 모두 친인척의 이름으로 올려 일년의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유명장부를 꾸며 어린 농아 학생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또한 졸업한 학생이나 사망한 학생을 정리하지 않고 농아학생들의 주민등록증을 이중으로 만들어 각종 지원금을 빼돌렸다. 농아 어린이 70여명을 강제로 해외 입양시켜 그 대가를 꾸준히 착복하기도 하였다.

이에 견디다 못한 원생들은 96년 11월 27일 최성창 이사장의 퇴진과 시설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하여 에바다 재단 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장애도 서러운데 횡령도구 웬말이나』 등의 현수막을 걸고 구호 대신 울부짖음으로 절규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기억하리라. 그러나 에바다복지회의부정과 비리 뒤에는 더욱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농아원측과 자매결연을 맺은 주한미군이 남자 농아원생들을 재단측의 묵인 속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에바다 복지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 위해 원생들이 평택 에바다 학교를 출발하기 직전, 농아원 직원이 원생들의 집회 참여를 가로막으며 한 명에게 “너는 에이즈 검사부터 해야 할 놈이다. 야 미군 때문에 병원까지 다녀온 주제에 어딜 나서느냐”라고 말하면서 미군에 의한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은 알려지게 되었다.

에바다 재단측의 부정과 비리 속에 소문으로만 무성하게 나돌던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후원을 미끼 삼아 말 못하는 남자 농아원생들을 송두리째 짓밟은 미군의 파렴치한 범죄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지난해 6월 어느날, 미성년자인 이 모군 (16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윌리엄스 야에스 일병 (33세 미 7공군 소속)을 따라 송탄에 있는 미군부대로 들어갔다. 이군은 말하지 못하는 농아 학생이었다. 평소 햄버거를 사주며 부대를 구경시켜 주었던 윌리엄스를 따라 나선 것이다.

윌리엄스는 수화를 할 줄 아는데다 마술쇼를 보여주기도하여 원생들에게는 인격있는 미

군이였다. 자연스레 그를 따라나선 이군은 부대내 윌리엄스의 숙소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다. 이군이 침대에 누웠을 때 윌리엄스는 이군의 속옷을 벗기고 그의 아랫도리를 만지기 시작하였다. 말도 못하는 이군은 싫다고 반항했으나 덩치 큰 윌리엄스의 힘을 뿌리치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어 윌리엄스는 이군을 강제 추행하였다. 20여분 남짓한 시간은 농아자인 이군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주었다.

이군의 끔찍한 모욕은 다른 원생들에게도 이어졌다. 햄버거를 사주며 사전을 가장한 윌리엄스의 추악함은 지난해 9월 28일 또다시 드러났다. 김 모군(12세)을 같은 방법으로 피어내어 자기 숙소로 데려간 윌리엄스는 농아학생들에게 목욕을 하라고 시켰다. 윌리엄스는 목욕을 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다가가 김군에게 목욕탕 바닥에 엎드리라고 했다. 10여분간의 성폭행... 윌리엄스는 오군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 하였다. 그리고는 10월 27일 저녁 7시경 김군을 다시 불러내 성폭행 하였다. 지난 3월 12일 2시 수원지방법원 208호에서 준 강제 추행 및 미성년자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윌리엄스 이병의 1차 재판이 열렸다. 윌리엄스는 변호인 신문에서 위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다.

당시 경찰과 예바다 재단측은 이 사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주한미군의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이 가져 올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농아원 비리,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부담이 한통속이 되어 사건을 은폐시킨 것이다.

운동본부에서는 위의 사건을 접수한 후 농아원생들의 농성장을 방문하여 사건을 확인하였고 규탄집회와 더불어 재판부에 범행미군의 엄중처벌 촉구서안을 보냈다.

⑱ 대구 미군과 미군 자녀들에 의한 시민 폭행 사건

97년 2월 9일 01시 5분 대구 광역시 중구 봉선동 유신학원 근처에서 주한미군 자녀 부시 보디니 (남 18세) 외 5명이 한국인 택시기사를 집단폭행 하였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이를 보게 된 시민 전종렬 씨 외 2명이 범인들을 차로 쫓아가자 가해자들은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에 전종렬씨 외 2명이 역시 차를 몰고 이들을 쫓아갔으며 추격 도중 가해자들의 차번호를 인식하였다. 전씨가 계속 쫓아가자 가해자들은 대구 광역시 남구 봉덕 1동 봉명마트 앞에서 내렸다. 곧이어 뒤쫓던 전씨 등이 차에서 내리자 가해 미군과 자녀들은 전씨 외 2명을 또다시 집단 폭행한 후 달아났다. 97년 2월 9일 이 사건은 대구 남구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미군측에 신원확인을 한 결과 그들은 대구에 주둔한 미군과 미군들의 자녀로서 미/일 청소년 레슬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론으로 출국하였으며 97년 2월 24일 입국할 예정이다. 이에 남부서에서는 97년 2월 25일 이들을 1차 소환하였고 28일 이 사건을 정식 입건했다.

⑲ 홍익대학교 조중필 학우 사망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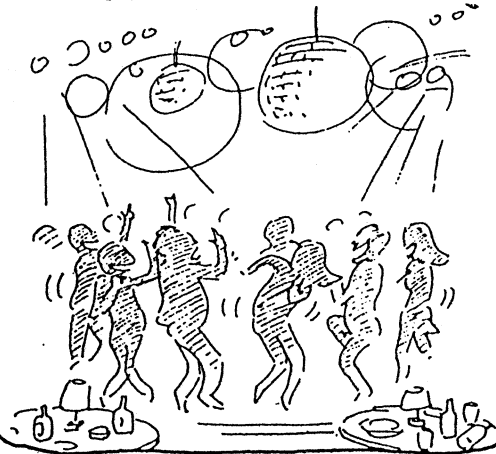
97년 4월 3일 이태원에서 홍익대학교 전과공학과 93학번 조중필 학우가 미국인 2명에 의해 살해 되었다.

사건 당일 조군은 이태원에 사는 친구를 배려다 주려고 함께 갔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 근처의 버거킹 가게에 들어갔다. 친구는 간단한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었고 조군은 화장실에 가면서 중간에 서 있던 에드워드 리 (재미교포 2세, 미국국적인 미국인), 페터슨(주한미군 자녀) 과 잠시 눈이 맞았었고 그대로 화장실에 갔다. 당시 에드워드와 페터슨은 낮에 본 폭력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조군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서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있는 조군을 뒤에서 칼로 목 등의 9군데를 찔러 살해하고는 도망갔다. 친구는 조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경찰이 아닌 119로 연락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이미 가게 종업원들이 청소를 한 뒤여서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며칠 후 CID에서 2명의 범인을 잡아 왔고, 그들은 서로 자기가 안했다고 우기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에드워드가 주동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홍익대 학우들은 이를 규탄하기 위해 3가지 사안-경찰의 철저한 수사, 살인자 엄중처벌, 주한 미 대사의 공식 사과-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고 며칠사이에 700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이에 응해 주었다. 그것을 경찰과 주한 미 대사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한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그 3가지 요구안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우 말화보 보는 세상 ↑

이태원 디스코텍에서 팝송을 들으며
신나게 춤을 춘다음



미국식 작별인사를
모방하기 좋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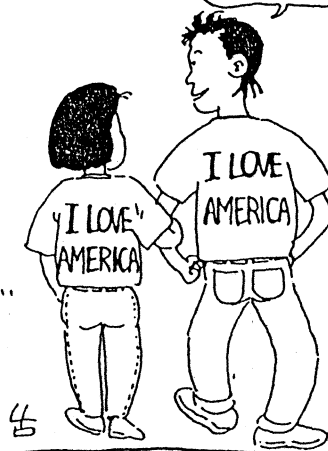
인간은 대항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풍경



이 티셔츠는 미국문화의
앞뒤를 너무나도 잘 묘사한
작품이다.

이 셔츠를 입은 아이들은
앞에 새겨져 있는 이쁜
그림에 현혹되어 셔츠를
구입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뒤의 글씨는 아랑곳 하지 않고..

민족주의?
그런 보수주의 논리야



우 말화보 보는 세상 ♂

모 여대 앞에서
이런 티셔츠를 입은
남녀를 볼적이 있다



앞에는 내가 보기에
아주 이쁜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뒷면에는 위와 같은
글씨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티셔츠를 입은 남녀는 미국
직배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서
다저성, 나와



저녁식사로 피자와
콜라를 맛있게 먹고

